

RESEARCH ARTICLE

Meditation as a mental revolu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Ken Wilber's Integral theory and Transformation of Seon Buddhism's consciousness

Oh, Yongsuk*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of Mind Humanities, Wonkwang University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신혁명으로서의 명상: 켄 윌버의 통합이론과 선불교의 의식 변형을 중심으로

오용석*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barabogi1014@naver.com



OPEN ACCESS

Citation : Oh, Yongsuk, Meditation as a mental revolu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Ken Wilber's Integral theory and Transformation of Seon Buddhism's consciousness.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1, 15-25.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40002>

Received: May 21, 2024

Revised: June 22, 2024

Accepted: June 25, 2024

Copyright: © 2024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is study used Ken Wilber's integral theory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mental revolution necessa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Seon Buddhism's theory of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This study was discussed from a meditative perspective in four ways. First, I examined that the perspectiv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esented by Klaus Schwab emphasizes the need for spiritual and cultural values for human coexistence from the existing technology and material-centered perspective. Second, it was discussed that research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eded to be conducted in an integrated manner, and this possibility was examined through Ken Wilber's integrated approach, IOS (Integral Operating System). Third, among the 'four quadrants of the integrated 4th industrial revolution', 'I [self-transcendence(Seon Buddhism)]' in the left-top quadrant is again categorized into 'I(Buddha nature)', 'We(no difference between oneself and others)', 'It [body (Interaction)]', and 'Them (hyper-connected society)'. Fourth, this study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Seon Buddhism's theory of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focusing on 'I (Buddha nature)' among the 'four quadrants in integrated self-transcendence (Seon Buddhism)'.

Key Words : Ken Wilber, integral theory, Seon Buddhism, spiritual revolu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ory of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I. 서론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 양측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다(<https://www.yna.co.kr/view/AKR20231104022400079?input=1195m>). 사망자 가운데 80% 이상이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희생자의 약 40%가 어린이라고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시작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 시온(이스라엘)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자는 시온주의를 통해 유대인들은 20세기 들어 팔레스타인 땅에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던 영국이 1917년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나라를 세우는 ‘벨푸어 선언’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1948년 이스라엘을 세웠다. 이로부터 이들 간의 분쟁은 75년간 계속되어 왔고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공격으로 다시 극렬한 대립이 가시화되었다. 이 전쟁은 벌써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벌써 3만 5천여 명을 넘어섰다. 이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여전히 앞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지금, 지구 한 편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아 그리고 이념에 의한 억압과 불평등이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제4차 산업혁명이 물질문명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신문화까지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한계와 가능성은 ‘정신혁명’이라는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물질문명의 혁명적 전환과 정신문명은 어떠한 관계일까? 기든스(A. Giddens)의 사회구조 이론에 의하면 사회구조는 행위의 매체이면서 그 산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행위자로서 인간과 사회적 구조는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행위자와 구조의 관계는 구조를 재생산하는 개인적 행위자의 행동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김윤태, 2007: 54). 물질문명은 가시화된 구조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구속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다. 반대로 개인의 행위는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비례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문명의 발전과 인간의 정신문명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정신혁명으로 명상의 가능성을 부연하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의 4차 산업혁명 담론에서 정신혁명이 물질혁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 시켜줄 것이다. 더 나아가 범인류적 차원에서 물질과 정신문명의 발전이 인류의 공존과 번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을 살펴보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지금까지 논의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켄 윌버의 통합이론에 제4차 산업혁명을 적용해 정신혁명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논의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선불교의 의식 변형론을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선불교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긍정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I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념과 선행연구의 흐름

클라우스 슈밥(2016)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 1760~1840년경에 걸쳐 발생한 기계에 의한 제1차 산업혁명;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전기와 대량생산의 제2차 산업혁명;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PC(1970년대와 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의 컴퓨터와 디지털 혁명의 제3차 산업 혁명에 이은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면서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클라우스 슈밥, 송경진 옮김, 2016: 25) 그는 이 책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영향력, 방법론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개괄했다. 그 뒤에 그는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The Next)”에서 기존의 관점을 보완하여 인간 공통 가치에 부합하는 관점을 제공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희망적인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진화는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 이 교차로에 서 있다는 것은 거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공공의 선을 촉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협소한 이해관계와 편향된 시스템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인간 권리가 침해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권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개인, 사회, 조직, 정부에 영향을 끼치게 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하다.”(클라우스 슈밥, 김민주·이엽 옮김, 2018: 13)

클라우드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을 단순히 기술적 진보나 변혁이 아닌 인간의 권리와 공공의 선을 촉진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드론, 생명공학, 신경기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에너지 확보·저장·전송, 지구공학, 우주기술 등의 파괴적 혁신을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술·문화적 관점을 언급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 우리와 다른 이들을 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우리의 사고방식에 도전하고, 바꾸도록 노력하며, 생소하고 불편한 것들에 익숙해질 수 있다. 예술은 ‘다름’을 위협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확장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며, 다른 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을 길러준다.”(클라우드 슈밥, 김민주·이엽 옮김, 2018: 250)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점은 기존의 기술과 물질 중심의 혁명에 예술과 문화라는 가치 중심적 관점이 균형을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각성에 기인한다. 인류가 앞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진보뿐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 해주는 적절한 정신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명구(2018) 역시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적 요소를 강조했다. “핵심은 이타주의를 함양하는 데 있다.”(강명구, 2018: 258-259) 이러한 관점들 모두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정신문명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자. 선행연구 가운데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명상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며, 둘째는 종교·철학적 측면에서 논의한 것이다. 우선 명상과 관련된 연구로 김영진(2017); 이종수(2019); 조효남(2019); 김상남·이영숙(2020); 도현(최현성)(2022); 여암스님(김동욱)(2022); 문일수(2022) 등이 있다. 명상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에 명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가, 명상의 실용적 측면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용되는 기술에 명상의 내용을 접목하는 대응적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교·철학적 연구로 심지원(2017); 박성호(2018); 박정식(2018); 염중섭(자현)(2018); 김영례(2018); 안환기(2019)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명학, 불교, 칸트의 사상 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거나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며,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인문학적 성찰을 다루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발전이 가져다줄 수 있는 이면을 종교·철학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치의 발견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켄 윌버의 통합적인 접근법인 IOS(Integral Operating System, 통합운영체계 또는 통합지도)를 통해 접근해 보자.

III.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켄 윌버의 통합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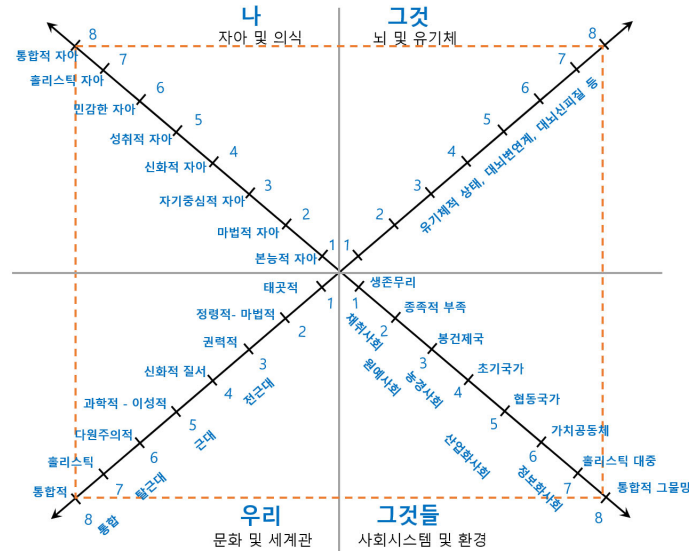
1차부터 3차까지 산업혁명은 그 특징이 동일하다. 공업화, 소품종 대량생산, 효율 극대화, 풍요, 권력 중앙 집중, 과도한 경쟁 등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도 유사하다. 중산층이 성장하고, 인권 향상에 따라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불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 정부 역할은 커지고, 교육 및 의료 기관도 비대해졌다.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플랫폼은 합법적으로 독점한 개인과 집단이 이익을 독차지했다. 이로 인해 기업간, 국가간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이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 결과인 획일화, 중앙 집중, 폐쇄성에 대한 반작용이다. 그래서 맞춤, 분권, 개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한다. 맞춤은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변화를 의미한다. 분권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반발이다. 개방은 정보가 모인 플랫폼 간 개방과 상호 연동으로 나타난다(강명구, 2018: 38-39).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그에 대한 해법을 살펴보자.

박성호(2018)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연결과 융합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과 융합의 문제를 장애하는 요인으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몰욕 등을 지적하며 양명사상의 만물일체설과 심즉리설을 강조했다(박성호, 2018: 196-197). 염중섭(자현)(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로봇이 합리성을 담보하지만, 인간의 행복이라는 주관적인 만족과 직관적인 판단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보고 선불교의 모순공정과 직관주의가 요청된다고 보았다(염중섭(자현), 2018: 88). 문일수(2022)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초연결사회’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진(burnout)시킬 위험이 있고, 아날로그식 오프라인 만남을 배제할 수 있는 등의 부정적 측면에서 명상의 역할에 주목하였다(문일수, 2022: 82-84).

대부분의 연구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연결’, ‘융합’, ‘합리성’ 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산업사회가 가져다줄 수 있는 문제점 즉 인간소외, 이기적인 욕망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명상, 양명사상, 선불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물질적 차원의 혁명에 머물고 있으며 인간의 정신적 혁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물질문명의 발전과 인간의 정신적 발달을 통합적이며 입체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또는 물질문명의 발전과 인간의 의식이 상호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면 정신혁명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켄 윌버의 통합적인 접근법인

IOS(Integral Operating System, 통합운영체계 또는 통합지도)와 접목시켜 사유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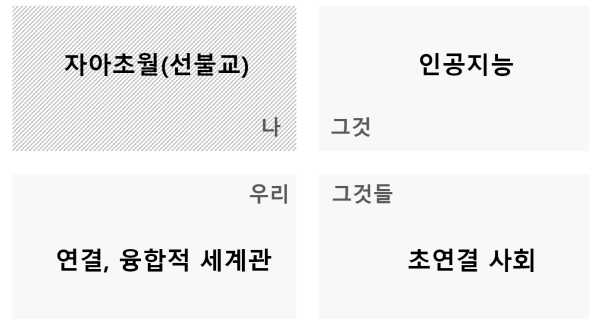
켄 윌버는 통합적인 지도의 요소로 4분면(quadrants), 수준(levels), 라인(lines), 상태(states), 타입(types)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그는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우리 자신과 주변의 세상을 더욱 포괄적이며 효과적으로 보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그러면 통합적인 지도를 4분면 중심으로 살펴보자. 켄 윌버는 ‘인류에게 초점을 맞춘 4분면’을 아래와 같은 도표로 나타냈다.(켄 윌버, 정창영 옮김, 2016: 74).



<그림 1> 켄 윌버의 인류에게 초점을 맞춘 4분면

좌-상 4분면은 우리의 생각, 느낌, 감각 등 모두 1인칭과 관련된 용어가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내면-개인적’인 것으로 ‘의도적’이다. 우-상 4분면은 어떤 사람을 밖에서 바라볼 때 드러나는 것들이다. 이것은 ‘외면-개인적’인 것으로 ‘행동적’이다. 좌-하 4분면은 개인의식을 포함한 ‘그룹(집단) 의식’이며 주관적인 자각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각을 포함한 상호주관적인 자각으로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우-하 4분면은 ‘사회적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외면 또는 밖에서 바라본 ‘우리’라고 할 수 있다(켄 윌버, 정창영 옮김, 2016: 17). 이처럼 4분면은 ‘나(좌-상) - 그것(우-상) - 우리(좌-하) - 그것들(우-하)’로 확대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식의 성장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의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나 더 큰 의식으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따라서 이를 4차 산업혁명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4차 산업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의식의 다양한 층위를 드러나게 해줄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4각형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펼쳐질 미래의 모습이다. 우선 좌-상 4분면의 ‘나’는 ‘통합적 자아’로, 좌-하 4분면의 ‘우리’는 ‘통합적 우리’로, 우-상 4분면의 ‘그것’은 ‘대뇌신피질’의 혁명으로, 우-하 4분면의 ‘그것들’은 ‘통합적 그물망’의 사회시스템으로 전개된다. 물론 켄 윌버가 이러한 도식을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류의 의식, 사회, 과학, 세계관 등의 발달과 진화를 통합적으로 설명해준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본다. 켄 윌버는 이러한 4분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듭 말하지만, 4분면은 단순히 개인과 집단의 내면과 외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면 이 4개의 4분면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켄 윌버, 정창영 옮김, 2016: 74-75) 이를 통해 4분면이 4차 산업혁명을 포괄적이며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통합지도의 4분면을 적용해보자.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4차 산업혁명의 4분면’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2> 통합적인 4차 산업혁명에서의 4분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그것’, ‘우리’,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켄 윌버의 통합 모델에 의하면 우리의 의식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로, ‘우리’에서 ‘세계’로 발달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켄 윌버의 통합지도의 다섯 요소인 ‘4분면(quadrants)’, ‘수준(levels)’, ‘라인(lines)’, ‘상태(states)’, ‘타입(types)’의 다섯 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달되는 것이 아닌 통합적으로 발전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적용해 좌·상 4분면은 ‘자아초월(선불교)’로, 좌·하 4분면은 ‘연결·융합적 세계관’으로, 우·상 4분면은 ‘인공지능’으로, 우·하 4분면은 ‘초연결 사회’로 도식화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보니 기존 논의되었던 4차 산업혁명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선불교는 흔히 생각하듯 마음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는다. 선불교가 갖고 있는 대승불교적 특징과 사회성 및 세계관 등을 고려하면 켄 윌버의 통합모델과 유사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선불교’는 인경(2022)이 논의했던 ‘명상불교’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이 용어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통적 맥락의 ‘선불교’란 용어를 여기서 ‘명상불교’란 용어로 바꾸어 부른 이유는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심리상담을 비롯한 현대 과학적 접근과 함께 공동 연구할 필요성 때문이다.”(이필원 외 4인, 2022: 159) 이정민·장진영(2022) 역시 ‘마음통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마음통합의 범주를 우리의 몸과 일상, 그리고 사회적, 생태적 나아가 우주적 관계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마음통합 산업은 마음에 대한 통합적 연구의 연장에서 볼 수 있다. 작게는 종교를 비롯한 인문학 영역과 과학 영역의 융합, 종교영역과 생활영역의 융합,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결합 등 크게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전반에 걸쳐 있다”라고 하였다(이정민·장진영, 2022: 23).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4분면에 나타난 상호관계적 측면이다. 조효남(2013)은 일찍이 켄 윌버의 통합지도에 심신치유를 적용 및 해석하면서 이러한 상호영향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온분면(상한)의 각 분면(상한)의 건강법·치유법은 서로 별개의 건강법이나 치유법이 아닌 모든 건강·치유수준에서 각 분면이 상호작용하면서 동시 발생적으로 상응하는 것들이다. 어느 한 분면이 없이는 다른 분면도 성립할 수 없고 각 분면은 시계방향·역시계 방향으로 상호의존·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테면, 위상분면의 신체적 치유는 우하분면의 사회적 건강의 교육·제도·환경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한 사회적 보건·환경·제도·교육은 상응하는 좌하분면의 문화적 건강문화치유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좌상분면의 개인의 내면의 심적·정신적·영적 건강·치유를 변화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돌아가며 동시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변화시키며 변화하게 된다.”(조효남, 안희영, 2013: 206)

켄 윌버의 통합지도는 4차 산업혁명은 물론이고 신심치유, 의학, 생태학, 영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과 문화, 사회 등이 연기적 관계에 있기에 제시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로 안환기(2019)의 관점을 살펴보자.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초연결사회로 보고 이를 불교의 4연(인연, 소연연, 등무간연, 증상연)과 비교하여 해석했다.

“즉 인간은 네트워크 속에서 데이터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는 자신의 욕망[인연], 인식대상[소연연], 마음이 순간순간 변하는 현상[등무간연] 이외에도 간접적인 원인[증상연] 즉 네트워크에 지속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와이파이, 배터리의 역할이 있다. 네트워크 속에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유력의 ‘증상연’인 전력, 와이파이기가 없다면 앞의 과정은 생겨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리가 방에서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을 때, 벽에 걸려 있는 액자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노트북 위에 떨어져 접속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력의 ‘증상연’이 된다. 이처럼 불교의 4연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생겨난 인터넷 네트워크 사회를 설명해주는 원리가 된다.”(안환기, 2019: 1287)

위의 논의는 불교의 연기설에 의거해 인터넷 네트워크 사회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4차 산업혁명의 4분면에 적용하면 자아초월, 연결·융합적 세계관, 인공지능, 초연결 사회를 입체적이며 상호관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정신혁명으로서의 자아초월(선불교)은 하나의 부분이면서도 전체이기도 하다. 조효남(2019)은 앞으로 펼쳐질 AI시대의 정신과학적 통합심신치유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며 정신혁명의 필요성을 통합적이며 유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이 새로운 AI시대의 초고도 과학기술의 밝은 면으로는, 인간의 삶의 質을 높여주고 물질적 생존과 기후·생태·환경파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측면이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AI중심의 사회계층의 고착화와 이를 전유하는 가진자 권력자들의 탐욕적 욕망과 소유와 지배욕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감시통제되는 투명사회에서 피상적인 사회적 소통 활동이 초래하는 다중인격화, AI사회시스템의 종속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내면정신(자기정체성·자존감), 심리, 감정정서의 억압화, 고독화, 소외화의 심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정신심리 장애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보통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난 시대보다 더욱더 몸·마음·영혼BMS, 즉 몸기정말얼영의 다차원의 에너지와 의식의 치유요법에 의해 통합적으로 치유해야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조효남, 2019: 16)

지금까지 켄 윌버의 통합지도를 상호관계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4차 산업혁명에 적용해보았다. 그러면 앞의 ‘<그림 2> 통합적인 4차 산업혁명에서의 4분면’ 가운데 좌·상 4분면의 선불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보자.

IV.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선불교

본 연구에서는 앞 장의 <그림 2> 통합적인 ‘4차 산업혁명에서의 4분면’을 통해 좌·상 4분면의 ‘나’를 ‘자아초월(선불교)’로 범주화했다. 그러면 다시 이 ‘자아초월(선불교)’을 통합지도의 4분면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통합적인 자아초월(선불교)에서의 4분면

좌·상 4분면은 ‘본성’으로, 좌·하 4분면은 ‘자타불이’로, 우·상 4분면은 ‘몸’으로, 우·하 4분면은 ‘초연결 사회’로 도식화했다. 좌·상 4분면은 ‘나’의 통합적 차원을 말하는 것으로 선불교에서는 이를 ‘본성’의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았다. 좌·하 4분면은 ‘우리’의 통합적 차원을 말하는 것으로 선불교의 자타불이적 세계관을 나타낸다. 우·상 4분면은 ‘그것’의 통합적 차원으로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몸’의 작용과 관계있다. 여기서 몸은 ‘피모대각(被毛戴角)’(祖堂集 卷16, B25, 597a)과 같이 신체를 통해 드러나는 자비의 실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피모대각은 인간이 아닌 축생도로 나아가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불교의 이상적 교화의 모습을 의미한다. 우·하 4분면은 ‘그것들’의 통합적 차원을 말하는 것으로 ‘초연결 사회’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인경(2022)이 논의한 ‘명상불교의 달마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응용한 것이다. 그는 전통적 맥락의 ‘선불교’란 용어를 ‘명상불교’로 바꾸어 ‘명상불교’의 달마분류체계를 새롭게 정의했다.

“불교에서 법을 분석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범주는 남방불교에서는 마음, 물질, 마음 현상, 열반이란 4가지로 분류하고, 북방불교에서는 여기에 논리적 관계나 언어적인 명칭처럼 ‘마음’과 ‘마음 현상’이 서로 직접적으로 상응하지 않는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을 첨가하여 5가지로 분류하곤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성의 영역이 없다. (...) 남방 전통의 ‘열반’이나 아비달마의 ‘무위법’을 대승불교의 ‘본성’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이들을 본성의 영역으로 포함시킨다. 이에 인간을 이해하는 법(dharma) 분류체계를 간결하게 통합해서 ‘몸(색법)’, ‘마음(심소법과 불상응행법 포함)’, ‘본성(열반과 무위법을 포함)’에다가 새롭게 ‘사회’적 영역을 첨가하여 전체를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 명상불교에 초월적인 본성과 함께 사회적 영역을 포함시킨 이유는 일차적으로 본성의 진여문과 현실의 사회적인 관점의 생멸문을 통합적으로 운영한 목적이 크지만,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구조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적 영역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필수적 영역이라고 판단한 까닭이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으며, 그동안 불교 심리학에서 소외된 사회적인 영역을 포함시켜서, 명상/선불교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화시킬 목적도 있다.”(이필원 외, 2022: 158-159)

본 연구는 인경(2022)의 명상불교(선불교)의 달마분류체계를 응용하여 ‘통합적인 자아초월(선불교)의 4분면’을 ‘본성’, ‘자타불이’, ‘몸’, ‘사회’로 범주화했다. 인경(2022)의 달마분류체계에 사회를 포함시킨 것은 켄 윌버가 통합지도에 문화와 사회를 포함시킨 것과 같이 전체론적이며 유용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논자는 ‘마음(마음현상)’을 선불교의 ‘본성’에 포함시켜 이해하고, ‘몸(물질)’은 ‘작용’의 관점으로 이해하여 ‘마음’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면 선불교의 ‘본성’이 갖는 정신혁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이 문제를 의식 변형론의 관점에서 논의해 보자. 여기서 말하는 ‘의식 변형’이란 선의 실재 체험 과정을 이르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즈쓰 도시히코(2013)가 “의식과 본질”에서 도식화한 개념인 ‘분절 I → 무분절 → 분절 II’의 도식을 차용해 설명해 보자. 이것은 선의 실재 체험의 전 과정을 이론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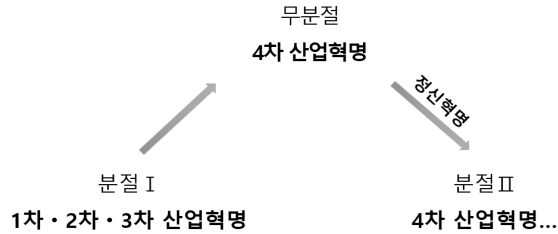
“삼각형의 정점을 이루는 무분절은 이미 몇 차례나 언급했듯이 의식·존재의 제로 포인트다. 주의할 것은 ‘의식 그리고 존재’가 아니다. 이 경지에서 의식과 존재는 완전히 융합해서 양자 사이에 구별은 없다. 의식의 측면에서 보아도, 존재의 측면에서 보아도 눈에 띄는 티끌 하나 없는 ‘확연히 성스러운 없음’의 경지다. (...) 그것에 대해 삼각형 저변의 양단을 점하는 분절 I 과 분절 II는 그 명칭 자체가 보여주는 대로 사물이 상호간에 구별되고 또한 그들 사물을 인지하는 의식이 사물로부터 구별된 세계, 즉 우리가 평소 습관되어 있는 보통의 경험적 세계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실존 지평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또한 세계와 관련된 자기를 이해한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이 각각 자신의 존재성을 주장하는 형이하의 존재 세계라는 점에서는 분절 I 과 분절 II는 완전히 같은 하나의 세계이며, 표면적으로는 양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분절이라는 형이상학의 무의한 점을 거쳤는지 아닌지에 따라 분절 I 과 분절 II는 내적 양상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공통으로 같이 분절이기는 하지만 본질론적으로 보아 분절 I 은 유본질적인 분절인 데 반해 분절 II는 무본질적인 분절이기 때문이다.”(이즈쓰 도시히코, 박석 옮김, 2013:190-191)

이러한 ‘분절 I → 무분절 → 분절 II’는 잘 알려진 길주(吉州) 청원유신의 ‘산은 산임을 본다 → 산은 산이 아님을 본다 → 산은 다만 산임을 본다’의 개념화이다. 여기서 첫째 단계의 분절 세계와 셋째 단계의 분절 세계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단계에서 제각각 본질을 부여받아 질서정연하게 분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은 둘째 단계에서 본질을 박탈당하고 분절을 잃는다. 둘째 단계에서 셋째 단계로 옮길 때 그들 분절은 전부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나 분절은 돌아오지만 본질은 돌아오지 않는다. 산은 산으로 존재하고, 물은 물로서 존재한다(이즈쓰 도시히코, 박석 옮김, 2013: 195).

오가와 다카시 역시 이러한 “있는 그대로(0°) → 있는 그대로의 완전 부정(180°) → 본래 있는 그대로에 대한 회귀(360°)”라는 원환 논리는 원오 극근(圓悟克勤)의 『벽암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논점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다(오가와 다카시, 이승연 옮김, 2018: 133-135).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각 → 불각 → 시각 → 본각’이라는 이 구조는 가깝게는 『벽암록』에 보인 원환 논리를 계승한 것이며, 멀리는 최초의 이른바 ‘복종’선으로(방법을 禪定에서 看話로 발전시키면서) 회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원환 논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모순이라는 오랫동안의 과제에 응답한 것이며, 중국 선이 지닌 논리의 하나의 완성형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훗날 『십우도』의 구성도 이 ‘본각 → 불각 → 시각 → 본각’이라는 원환 구조를 시각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오가와 다카시, 이승연 옮김, 2018: 142) 이러한 원환 논리는 송산의 선원(禪圓)의 선원과 유사하다. 다만 송산이 ‘순간의 세계(moment world)’와 ‘대보살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불교의 의식 변형론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지어 서술해보자. 우선 ‘분절 I’은 ‘본질 혹은 실체가 전제된 분절’이다. 이 단계의 의식은 세상을 실체의 집합으로 이해된다. 실체적 관점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조개진 세계는 우리의 상식과 부합되는 세계로 1차·2차·3차 산업혁명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인식 세계와 부합된다. 이에 비해 ‘무분절’의 세계는 ‘본질을 박탈당한 무분절’의 세계로 물이 산이 되고, 산이 물이 되는 진공(眞空)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공간적 개념이 사라지는 홀로그램의 세계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나타나는 과학기술의 정점은 바로 시공간의 장벽이 해소되고, 가상현실이 새로운 현실로 대체된다. 권영선(2016)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가 음성에서 눈이나 신경망 접속방식으로 발전할 경우, 영화 인셉션(Inception)이나 매트릭스(Matrix)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인간은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권영선 외, 2016: 33) 이러한 세계는 바로 ‘무분절’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의식과 세계가 무실체(無實體)로서의 공(空)임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고 이해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분절 II’의 세계인 ‘분절은 되돌아오지만 본질은 돌아오지 않는 세계’는 무엇일까? 이 세계는 진공을 경험하면서도 진공에 사로잡히지 않는 세계이며, 눈에 보이는 자연스러운 일상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세계이다. 논자는 이러한 세계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단계에서 필요한 정신혁명을 거쳐 완성되는 세계로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말했던 선불교의 의식 변형에 산업혁명의 각 단계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선불교의 의식 변형과 정신혁명 I

선불교에서 말하는 의식 변형의 단계 가운데 ‘무분절’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정신혁명은 4차 산업혁명에 나타난 무분절의 특징이 평범한 일상과 융합되어 자타불이와 초연결사회로 나아가는 통합적 차원의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혁명은 흔히 말하는 ‘깨달음’에 의해서만 도달되는 것이라기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물질혁명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세계이다.

다음으로, 선불교의 의식 변형론을 송산스님의 ‘선원(禪圓)’을 활용해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자. 송산스님은 선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도 때로 원을 사용해 선 수행을 설명한다. 원은 0도에서 시작해 90도, 180도, 270도, 360도를 돈다. 360도 지점은 처음의 0도와 똑같다. 먼저 0도에서 90도까지 지점은 집착과 생각의 영역이다. (...) 180도의 영역은 생각이 전혀 없는 영역(Nothing I)이다. ‘공’을 경험하는 상태이다. (...) 이 영역에 도달하면 우리는 ‘나’가 없는 완벽한 정적의 마음을 갖게 되며, 또 그 경험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우주적 에너지를 갖게 된다. 신비하고 기적적인 영역에 도달한다. 이것이 270도의 영역이다. 자유로운 ‘나’를 얻는 단계이다. 공간과 시간에 장애를 받지 않는 완벽한 자유의 영역이다. (...) 180도의 영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공함에 집착하게 된다. 270도의 영역에 멈추면 ‘자유’에 집착하게 된다. (...) 마지막 360도의 영역은 만물을 단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만물은 진리이다. 진리는 바로 이와 같다. 여여(如如, truth like-this)이다. 이 점은 0도의 위치와 같다. 다시 돌아온 것이다. 출발 지점이 종착지가 된 것이다. 0도와 360도의 차이점은 0도는 집착하는 생각인 반면 360도는 집착하지 않는 생각, 즉 무애(無碍)인 것이다. (...) 이것을 순간의 세계(moment world)라고 한다. 한순간에 무한의 시간이 있고 무한의 공간이 있다. 한순간에 올바른 상황, 올바른 관계, 올바른 실천이 있다. 이때 행하는 실천이 대보살행이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현각 엮음, 허문명 옮김, 2010: 374-382)

송산스님은 선 수행의 구조 즉 의식의 변형을 원(圓)을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선원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0도와 360도의 지점 즉 분별의 영역과 궁극의 경지가 다르지 않다. 이것은 수행과 깨달음의 비선형적 관계를 보여준다. 즉 중생이 선형적 단계를 거쳐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선불교의 특징이라는 것이다(오용석, 2018: 198-199). 둘째, 선원은 분리되지 않는 전체성(全體性)을 상징한다. 선원은 상승과 회귀의 과정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원을 단순한 평면의 원이 아닌 한번 꼬여서 연결된 ‘뒤틀림’으로 추상화시켜 이해할 수 있다. 뒤틀림은 ‘뒤틀림’이라는 과정을 통해 평면의 원이 갖는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는 마치 선불교에서 깨달음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현상 속에 발을 담그는 과정과 유사하다. 송산이 말하는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의 경계는 존재적으로 실재하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 수행과 깨달음, 번뇌와 보리, 중생과 부처 등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보여준다(오용석, 2018: 201). 이러한 송산의 선원을 아래와 같이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선불교의 의식변형과 정신혁명 II

‘되비우스의 원’은 시작과 종점이 분리되지 않는다. ‘뒤틀림’은 평면적으로 보이는 상대성을 통합시키고, 본질을 부분질로 화회(和會)시킨다. 뒤틀린 원의 한 점과 원의 전체가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진정한 정신혁명은 현실을 벗어난 초월적 혁명이 아니라 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긍정하는 돈오적 혁명이다. 선원에서 0도와 360도는 상호작용한다. 그러므로 비록 번뇌의 소아(小我)와 업아(業我)의 단계에 있다고 하여도 여여(如如)한 청정심은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무아(無我)와 묘아(妙我)의 단계를 거쳐 여여한 청정심을 증득하더라도 번뇌의 소아 역시 서로 작용한다. 이때의 번뇌는 중생의 요구에 반응하는 방편의 지혜로 나타난다(오용석, 2018: 202).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그림 4>에서 나타난 선불교의 정신혁명과 <그림 5>의 정신혁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첫째, <그림 4>에서 나타나는 선불교의 정신혁명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이 고도로 발전하여 우리의 감각과 인식이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단계에서 선불교의 정신혁명은 물질문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때 선불교의 정신혁명은 4차 산업혁명에 나타난 무분절의 특징이 평범한 일상과 융합되어 자타불이와 초연결사회로 나아가는 통합적 차원의 혁명이다. 즉 물질문명이 정신혁명을 이끄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림 5>에서 나타나는 선불교의 정신혁명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물질문명의 고도화를 전제하지 않은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정신혁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혁명이 물질문명을 이끌어 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조하는 의식 변형은 숭산 스님이 강조했듯이 ‘순간의 세계(moment world)’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혁명은 현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물질문명과 균형을 잡아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타불이와 초연결 사회를 지향한다. 기존의 선불교 담론이 정신, 심리, 마음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가 논의되었다면 이러한 관점은 4분면의 통합적 관점이 함께 고려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선불교의 정신혁명은 물질문명의 진화 혹은 발전을 거부, 포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본성)’, ‘우리(자타불이)’, ‘그것(몸)’, ‘그것들(초연결 사회)’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진입 단계에 와 있다. 스마트폰 등 각종 디바이스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잡았고 ‘익스텐드 마인드’, ‘세컨드 브레인’처럼 인간의 기억과 정신 영역이 점점 외부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인간의 기억이나 정신활동은 육체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물질적인 영역과의 접점이 확대되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도 하나의 현실로 인식되고 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우리의 업무나 활동을 대신해주고 있지 않지만 점점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의해 구조화된 사회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물질적인 변화는 점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물질적인 혁명이 반드시 이로움만을 선사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 인종차별, 혐오, 분노,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문제로 자신폰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 괴로움을 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신혁명은 물질혁명 못지 않게 중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예로 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극복으로서 정신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행위와 사회구조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정신혁명의 가능성을 명상적 관점에서 네 가지로 논의했다.

첫째, 클라우드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의 관점이 기존의 기술과 물질 중심의 관점에서 인류의 공존을 위한 정신문화적 가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의 선행연구가 명상적, 종교·철학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연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켄 윌버의 통합적인 접근법인 IOS(Integral Operating System)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연결’, ‘융합’, ‘합리성’ 등으로 정의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이 켄 윌버의 통합지도에 의해 제시되었음에 주목했다. 켄 윌버는 인류의 진화가 ‘나(자아 및 의식)’, ‘우리(문화 및 세계관)’, ‘그것(뇌 및 유기체)’, ‘그것들(사회시스템 및 환경)’의 4분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4차 산업혁명의 정신혁명을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 켄 윌버가 제시한 4분면인 ‘나’, ‘우리’, ‘그것’, ‘그것들’의 관계를 상호의존의 관점에서 사유했다. 그리고 켄 윌버의 ‘인류에게 초점을 맞춘 4분면’을 활용해 ‘통합적인 4차 산업혁명의 4분면’을 ‘나[자아초월(선불교)]’, ‘우리(연결, 융합적 세계관)’, ‘그것(인공지능)’, ‘그것들(초연결 사회)’로 도식화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관계를 포괄적이며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통합적인 4차 산업혁명의 4분면’ 가운데 좌·상 4분면의 ‘나[자아초월(선불교)]’를 다시 ‘통합적인 자아초월(선불교)에서의 4분면’으로 범주화해서 ‘나(본성)’, ‘우리(자타불이)’, ‘그것[몸(작용)]’, ‘그것들(초연결 사회)’로 도식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근거로 인경(2022)이 제시한 ‘명상불교의 달마분류체계’를 참고 및 응용하였다.

넷째, ‘통합적인 자아초월(선불교)에서의 4분면’ 가운데 ‘나(본성)’를 선불교의 의식 변형론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여기서 의식 변형은 선의 실재 체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다. 우선, 이즈쓰 도시히코가 제시한 ‘분절 I → 무분절 → 분절 II’의 도식에 1차·2차·3차·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적용해 선불교의 정신혁명이 ‘무분절 → 분절 II’에 해당할 수 있음을 논의했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혁명’이 흔히 말하는 ‘깨달음’에 의해 도달되는 것이라기보다 4차 산업혁명의 물질혁명이 극에 달했을 때 필요한 정신혁명을 말한 것이다. 다음으로, 송산스님이 제시한 선원(禪圓)에 나타난 의식 변형론을 중심으로 정신혁명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송산스님은 선원(禪圓)은 0도와 360도의 경계 즉 분별과 궁극의 경지가 다르지 않음을 전체성의 관점에서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원을 평면의 원이 아닌 궤비우스의 띠와 같은 시작과 종점이 분리되지 않는 입체적인 관점에서 사유했다. 더 나아가 현시대의 정신혁명은 ‘순간의 세계(moment world)’와 ‘보살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신혁명은 물질혁명이 극에 달하지 않은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정신혁명이다. 그것은 ‘나(본성)’, ‘우리(자타불이)’, ‘그것[몸(작용)]’, ‘그것들(초연결 사회)’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켄 윌버의 통합이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정신혁명의 가능성을 선불교의 의식변형론을 통해 논의했다. 인간의 의식은 사회구조와의 상호의존 속에서 물질문명을 통해 자아관, 세계관, 가치관 등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정신혁명을 통해 현재 일어나는 세계의 변화와 흐름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유해 다시 세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신혁명은 심리적 차원만의 변화가 아닌 자아, 문화, 세계, 사회 및 환경까지 통합적으로 고려된 혁명이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류가 선불교의 정신혁명을 통해 공존의 해법을 찾고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보살의 실천을 해나가기를 기원한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켄 윌버의 통합이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정신혁명의 가능성을 선불교의 의식변형론을 통해 논의한 것이다. 개인의 행위와 사회구조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정신혁명의 가능성을 명상적 관점에서 네 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 클라우드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기술과 물질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류의 공존을 위한 정신문화적 가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연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켄 윌버의 통합적인 접근법인 IOS(Integral Operating System)을 통해 살펴보았다. 셋째, ‘통합적인 4차 산업혁명의 4분면’ 가운데 좌·상 4분면의 ‘나[자아초월(선불교)]’를 다시 ‘통합적인 자아초월(선불교)에서의 4분면’으로 범주화해서 ‘나(본성)’, ‘우리(자타불이)’, ‘그것[몸(작용)]’, ‘그것들(초연결 사회)’로 도식화했다. 넷째, 논자는 ‘통합적인 자아초월(선불교)에서의 4분면’ 가운데 ‘나(본성)’를 선불교의 의식 변형론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주제어

켄 윌버, 통합이론, 선불교, 정신혁명, 4차 산업혁명, 의식 변형론

참고문헌

『祖堂集』(B25)

강명구(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 키출판사.

권호정 외(2016), 호모 컨버전스: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아시아.

켄 윌버, 정창영 옮김(2016), 켄 윌버의 통합비전, 김영사.

클라우드 슈밥, 송경진 옮김(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_____, 김민주·이엽 옮김(2018),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 새로운현재.

이즈쓰 도시히코, 박석 옮김(2013), 의식과 본질, 위즈덤하우스.

오가와 다카시, 이승연 옮김(2018), 선사상사 강의, 예문서원.

- 이필원 외(2022),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운주사.
- 현각 엮음, 허문명 옮김(2010), 선의 나침반, 김영사.
- 김상남·이영숙(2020), “실감형미디어기반 불교의 열반 체험 VR콘텐츠 융합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26(1), 한국교수불자연합회, 31-46.
- 김윤택(2007), “통합적 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앤서니 기든스의 사회이론”, 사회와 이론 2, 한국이론사회학회, 49-81.
- 김영진(2017), “인공지능, 종교적 명상, 그리고 마음의 지향성- ‘명상하는 AI’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 철학·사상·문화 24, 동서사상연구소, 1-27.
- 김영태(2018),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 칸트의 인간학과 뇌과학 사이에서”, 철학논총 91(1), 새한철학회, 105-128.
- 도연스님(최현성)(202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현대 명상의 실용성”, 종학연구 8,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 107-140.
- 문일수(2022), “제4차 산업혁명 사회와 불교수행”, 종학연구 8,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 73-105.
- 박성호(2018),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류정신혁명과 양명사상”,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3-212.
- 박정식(2018), “인공지능과 인간의 마음”, 코기토 86, 인문학연구소, 195-218.
- 심지원(2017), “초 연결 사회에서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연결에서 관계형성으로”, 감성연구 15, 호남학연구원, 173-192.
- 안환기(2019), “불교와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 ‘4연(緣)’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5), 인문사회21, 1281-1292.
- 이종수(2019), “인지과학과 융합명상: AI, 감성, 창의 융합”,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5(2), 한국교수불자연합회, 52-80.
- 이정민·장진영(2022), “마음통합 산업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긍정적 선용 가능성”, 마음공부 4,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5-34.
- 오용석(2018), “선불교의 수행·깨달음에 나타난 비선형적 특징에 대한 고찰”, 선학 50, 한국선학회, 179-209.
- 여암스님(김동욱), “미래세대를 위한 명상 체험 방법 연구: 명상 체험 방법의 변화과정 중심으로”, 종학연구 8,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 5-39.
- 염중섭(자현)(2018), “4차 산업 시대 한국불교의 출가문제와 미래적 대안”, 선학 50, 한국선학회, 111-145.
- _____,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로봇의 상용화와 불교적인 인간 이해- 동아시아의 사유적인 특징과 선불교의 주관심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5, 한국불교학회, 65-94.
- 조호남, 안희영(2013), “통합심신치유의 통전적 패러다임 모델: Ken Wilber의 AQAL 모델을 넘어서”, 예술심리치료연구 9(2),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191-218.
- 조호남(2019), “AI시대의 정신과학적 통합심신치유”, 한국정신과학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4), 한국정신과학학회, 10-32.
- 김상훈(2023), “[이·하마스전쟁 한달] ① 또터진 화약고, 끝안보이는 '죽음의 전투'... '1년 갈수도'”,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4022400079?input=1195m>, 작성일: 2023. 11. 05.